

[로스쿨 합격기]

## 합격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홍지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 I.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홍지화 라고 합니다. 저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원우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게 합격수기를 쓸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한편으로는 민망함이 없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이라 하겠습니다)의 입학요강과 관련한 일반론과 관련해서는 입학설명회 등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관성은 수기(手記)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취득하신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 글을 취사선택 하신다면,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II. 학 점 (GPA)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 라 하겠습니다)과는 달리,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저는 학점을 타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할 때, 그 중요도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정량요소인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라 하겠습니다)과의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시간의 배분이, ② 정성요소인 자기소개서와의 관계에서는 전략적인 수강 과목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 1. 정량적 중요성 - 리트 한 문제 차이?

수험가에 “학점은 리트 한 문제로 커버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트이고, 학점은 리

트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 또한 로스쿨 입시를 시작할 무렵, 수 년 간 누적되어 변동 폭이 크지 않은 학점을 소폭 올리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리트를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험 전략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 리트와의 상대적 비교 아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학점은 리트 한 문제’라는 그 말은, 리트 한 문제의 간극을 과소평가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저는 리트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이는 후술할 ‘적성시험’으로서의 리트의 성격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학점을 벌여놓으신다면, ‘무려’ 리트 한 문제를 미리 맞히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잘한 대외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험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정성적 중요성 - 자기소개서의 소재

학점의 중요성은 정량평가 뿐 아니라 정성평가에서도 발휘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시나 취업 준비 등을 거치며 딱히 내세울만한 정성 요소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학교 수업 그 자체가 정성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수업을 수강하였고, 해당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교훈을 얻었다고 충실히 녹여낸다면 화려한 대외활동 못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얻어둔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 및 수월성을 증명할 수 있

는 좋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업 및 학점을 정성평가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는, 자기소개서의 대강의 방향성이 적어도 서류제출 두 세 학기 전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수강한 수업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사후적’으로 일관된 틀로 묶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자기소개서를 ‘사전적’으로 구상하고 그에 맞추어 수업을 듣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장차 어떤 활동을 해나가기를 희망하는지 정도는 꾸준히 고민해 보십시오. 짧으면 두 학기라도 자기소개서의 방향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들어 나가신다면, 별도의 대외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풍부하고 유기적인 자기소개서를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 관련 수업의 이수가 정성평가에서 얼마만큼의 큰 비중으로 고려되는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학 관련 수업에서 높은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법학 관련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리트 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기거나 평점평균이 하락할 위험을 짊어지기보다는,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녹여 쓸 수 있을 만한 한 두 개의 수업에 집중하여 높은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Ⅲ. 리트 (LEET)

로스쿨 입시는 ‘천하제일 리트대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시에서 리트의 영향력

은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리트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저는 20대를 행정고시 1차 공직적성시험(PSAT)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 이른바 ‘적성시험’과 함께 보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리트는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개념정의로부터 리트에 대한 대응방법을 도출해보겠습니다.

## 1. 법학 ‘적성’ 시험

리트는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만일 본인이 리트가 적성에 맞는 이른바 ‘리트형 인간’ 이시라면 리트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전날 어떻게 잠을 꼭 잘지만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분이라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진로를 찾아보시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적성을 이 시험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지식시험’과 달리 ‘적성시험’은 공부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르는 성격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선, 지식시험은 ‘반올림’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0.9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1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적성시험은 ‘버림’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리트의 경우 0.9문제 더 맞출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1문제를 더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됩니다. 즉, 0.9문제를 맞출 만큼 공부한 것은 사실상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결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리트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리트는 오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 오른 사람과 오르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

다면, 올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다만 올리는 데 시간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 시간은 예상보다 길습니다. 리트 대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긴 기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성이라는 것은 일평생동안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고작 한두 달 정도 투자하여 적성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입니다. 저의 경우, 운 좋게 열정 있는 스터디를 만나 1월 1일부터 리트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이 흐른 6월 즈음이 되니 리트가 요구하는 적성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른 시점에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여름 방학이 되니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자신에게 잘 맞는 학습방법으로 매진한다는 전제 하에, 적성을 바꾸기에는 8개월도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시작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기출 문제 1회분만 풀고 운명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 2. ‘법학’ 적성 시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적성을 갖추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 역시 명칭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법학’에 대한 적성입니다. 무엇이 법학에 대한 적성일까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또한 명칭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이해력, 추리력, 논증력이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같은 적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적성이 있는 것처럼 시능 정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적성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혹은 덜 갖췄으면서 온전히 갖춘 사람과 대등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 혹은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학을 예로 들면, 법률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인과관계론 등의 방법론과, 그 논의의 전제가 되는 법, 법률행위, 인과관계 등의 개념이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비법학사로서 이러한 학습을 혼자 해내기에는 다소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서 법학 및 논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수강하였고, 스터디를 통해 법철학 혹은 법학방법론 관련 개론서를 함께 읽고 발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변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개별 법 과목을 학습하여 리트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요구됩니다. 적어도 로스쿨 1학년 신입생 수준으로 밀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림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험의 성격 때문입니다. 연습·복습을 동반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한번 흘려듣는 정도로 전공과목을 공부한다면, 투입한 시간 대비 만족할만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트는 어디까지나 법학 ‘적성’ 시험이지 법학 ‘지식’ 시험은 아니라는 점, 많은 수험생들이 길어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개별 법 과목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에서 빈출되었던 개념 및 방법론을 우선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3. 법학 적성 ‘시험’

리트는 법학에의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습을 통해 법학 적성을 갖춘 ‘적’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술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평가방식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푸는 사람’이 다릅니다. 수험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시험 당일 처음 접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별 고민 없이 풀이를 시작해도 정답을 맞힐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의 경우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도중에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추론해보는 것이 꼬인 매듭을 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자의 지평’에서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훈련함에 있어, 주어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리트에서 출제되는 소재와 관련한 입문서를 선정하여 본고사와 최대한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지문 및 선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훈련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제자의 시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문제풀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험은 팀플레이 아닙니다. 수험생은 의사소통이 차단된 환경에서 ‘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 도중에는 일체의 조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지문은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 것인지, 개별 지문은 어떤

방식으로 입을 것인지, 지문을 먼저 볼 것인지 선지를 먼저 볼 것인지, 선지는 몇 번부터 풀 것인지 등과 관련한 전략을 ‘사전에’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② 현장에서 그 전략을 써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①단계는 학원 강의 혹은 유경험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②단계는 혼자만의 부단한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세운 전략이 통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1년 동안 각종 기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제가 수립한 전략이 통하는지 시험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시험은 멘탈 싸움입니다. 시험에서는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맞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 문제를 오랜 시간을 들여 맞히기 보다는 단번에 찍고 시원하게 틀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 문제를 푸느라 끙끙댈 시간에 쉬운 두 문제를 확실하게 맞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푼 문제를 다 맞히더라도, 손도 못 댄 문제가 수두룩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풀이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그 당혹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로스쿨 입시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평소에 본고사 시간보다 5~10분정도 단축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시간 압박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반복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 IV. 기타 요소

지금까지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학점과 리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

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량적 요소로는 영어, 정성적 요소로는 교내외 활동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최종 단계인 면접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의 엄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성적 요소보다는 정량적 요소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성적 요소 중에서는 교내외 활동 보다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인 교내외활동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자기소개서에 풍부히 녹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술하였다시피, 전략적인 교과목 선택을 통해 별도의 활동 없이도 풍부한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별도의 대외활동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터라 특별히 전달해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어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린 뒤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영어

영어야 말로 각 학교별로 반영하는 방식 및 비율이 천차만별이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의 입학요강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P/F로 반영되는 학교에서는 영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지 않겠다는 시그널링을 하는 것이므로, 커트라인만 넘긴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점수로 반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토익(TOEIC)과 텡스(TEPS), 토폴(TOEFL) 중 어떤 것이 인정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하고자 학교가 여러 가지를 받아준다면, 본인의 스타일에 가장 맞는 시험을 하나 골라 그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

습니다. 흔히 토익이 난이도가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텀스가 토익에 비해 문제 유형이 더 익숙하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더 높은 환산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정했다면, 장기간 꾸준히 시간을 들여 최대한 높은 점수구간을 획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자들보다 리트 1문제, 못해도 0.5문제라도 앞서갈 수 있다면 실질반영율과는 별개로 큰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시험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차별로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때문에, 리트 이후라도 원서 접수 이전까지는 꾸준히 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리트 이후 응시하였던 텀스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 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정성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고, 설령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로스쿨 입학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성들여 작성한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특별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는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보는 초등학생의 글과 유사한 수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대충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돋보이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지원동기와 무관한 활동들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는데 힘을 쓰는 것은 아니한 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진솔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본인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로스쿨 지원동기와 관련하여 적어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전술하였다시피 보고서 작성하듯 원서접수 마감 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짜내기보다는, 매일 한 단 어씩 자서전을 완성해나간다는 느낌으로 미리, 그리고 꾸준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3. 면접

면접은 로스쿨 입시의 최종 관문입니다. 각 학교별로 실질반영율에 차이는 있겠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합불의 대강은 면접 이전단계에서 결정되고 면접은 미세 조정단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량요소가 강조되는 입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저 역시 면접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정량 응시자가 면접으로 뒤집고 최종합격한 사례가 회자되기는 하지만, 달리 보면 이는 회자될 정도로 드문 사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쟁쟁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중간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운 좋게도 리트 스터디가 자기소개서 및 면접 스터디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리트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터디를 통해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고, 그 틀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합격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글과 행동

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타인의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소하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요소들이 하나 둘씩 합격의 방향으로 교정되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V. 글을 마치며

주변에서 “로스쿨 어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오라.” 고 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확고하게 법률가를 꿈꿔온 사람들에게는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크게 다를 것 없는 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법률가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 체제와 달리 로스쿨은 저 같은 순수 비법학사에게 밀도 있는 법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법조삼륜의 영역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소양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3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 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同志)을 쉬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연다면 상대방도 선의로 나를 대해줄 것이고, 이렇게 동지들이 하나 둘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져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곳,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믿음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견해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힘들게나마 걱정을 거두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